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알제리 알제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03
II. 현지체류 정보	04
III. 알제리 동향 및 전망	11
IV. 알제리 수출 대금결제 방식 ...	17
V. 주요 연락처	19





I. 국가 개요(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 K-STAT)

국 가 명	알제리 인민민주주의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위 치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연안(모로코, 서사하라,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등 7개국과 접경, 국경선 6,343 Km, 해안선 998Km)
면 적	2,382천 km ² (한반도의 약 10배, 아프리카 1위, 세계 10위)
기 후	북부 : 지중해성(10-30도), 남부 : 대륙성 및 사막기후
수 도	알제 (Algiers)
인 구	4,050만 명 (2016년 2월 기준, 알제리 통계청)
주요도시 (인구)	알제 포함 수도권지역(Greater Algiers/483만명), 오랑 (Oran/115만명), 콘스탄틴 (Constantine /81만명), 안나바 (Annaba/58만명)
민 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언 어	공용어-아랍어 및 베르베르어, 상용어-불어
종 교	이슬람 수니파(98%), 카톨릭(2%)
건 국 일	1962년 7월 5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인민공화제 (5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2014. 4. 17 대선에서 4선 재임)
총 리	Abdelmalek Sellal
명목 GDP	US\$ 1,634억
실질경제성장률	1.5%
1인당GDP	US\$ 14,691 (PPP기준)
실 업 율	11.0%
물가 지수	6.3%(소비자물가 상승지수)
화폐 단위	DZD (Algerian Dinar)
환 율	US\$1=DZD 115.80
외환 보유고	US\$ 1,257.38억
산업 구조	(‘11) 석유가스산업 36.2%, 민간부문서비스 20%, 공공서비스 16.4%, 건설 토목 9.2%, 농업 8.1%, 제조업 4.6%, 조세 5.5% * 자료원 : IMF 채굴산업 비중 36%, 농업부문 9.7%, (이상 1차 산업) 전기, 가스, 수도 산업(0.8%) 이외 제조업 4%, 건설이 9.6%(이상 2차 산업), 서비스산업 20.8%, 공공서비스 18.1%(이상 3차 산업), 기타 서비스 1.0% 차지
교역 규모	(수출) US\$ 617.2억 (원유/가스류 비중 98% 이상) (수입) US\$ 581.9억
대한 교역 규모	○ (대한)수입 : 1,417.4백만\$ (전년대비 38.4%증가) - 주요품목 :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기계 및 컴퓨터, 전기제품 등 ○ (대한)수출 : 1,948.1백만 (전년대비 118.0%증가) - 주요품목 : 나프타, 원유, 천연가스 등



II. 현지 체류 정보

1. 기후

☐ 북부 해안 (지중해성 기후) 과 남부 사막 (사막형기후) 상이

-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로서 겨울은 온난하며 우기임. 여름은 무더우나 습도가 낮아 한국에 비해 더위의 정도가 덜함.
 - 평균기온 : 7-8월 30도, 11-2월 12도,
 - 연간 강수량 : 800-1000 mm (겨울철에 집중)
- 남부 사막은 무덥고 건조한 전형적인 사막형 기후
 - 평균기온 : 6-9월 40도, 11-2월 20도,
 - 연간 강수량 : 200 mm

2. 시차/ 근무시간

☐ 시차 : KST - 8 시간

- 알제리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은 KST-8시간으로 한국이 정오(12시)일 때 알제리는 당일 오전 4시임. 이슬람국으로 유럽에서 하절기(3월말-10월말)에 시행하는 썬머타임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알제리는 프랑스 파리와 동일 시간대이나 썬머 타임이 시행되는 하절기에는 프랑스보다 1시간이 늦어지므로 동 기간 중 파리 등 유럽 중간 경유지를 통해 알제리로 출입국 할 경우 1시간 시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 도착 시간 등을 로컬시간으로 재확인하는 등 유의 필요

☐ 근무시간

- 관공서와 공공기업, 은행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4시까지 근무하며 일반기업 및 상점의 경우 17:00까지 근무.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무이고 개인기업의 경우 휴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은행의 경우는 금, 토요일이 정기휴일임. 금식 월인 라마단 (Ramadan)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단축(8시-2시)근무 하므로 오후에는 상담이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음



3. 도량형

○ 알제리는 1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 각종 규격 및 표준이 프랑스제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사회, 경제시스템이 프랑스의 복사판임. 도량형은 프랑스식 미터법이 일반적임. 즉 거리에는 미터, 무게에는 그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무게: g, kg, ton

- 길이: cm, m, km

○ 전기규격

- 소형주택에는 단상 220볼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형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는 삼상 380 볼트가 공급되고 있음. 전기 주파수도 50HZ로 한국과 다소 다르며 각종 플러그나 콘센트의 규격 도 유럽 즉, 프랑스식 표준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다소 달라 출장 시 휴대용 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노트북 사용 등에 편리함. 간혹 전기공급상의 문제로 세탁기등 모터가 부착된 국내가전제품의 경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함.

4. 출입국/비자

□ 입국비자

○ 한-알제리 양국간에는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한 알제리 방문자는 입국비자를 주한알제리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취득에는 서류접수 후 근무일 기준 14일이 소요됨.

○ 일반여권 소지자의 알제리 입국 비자 취득 조건

- 여권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알제리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관광비자

- 알제리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호텔예약증명서나 알제리에 거주하는 특정 알제리인으로부터 초청장과 숙박 편의 제공 보장서(동 숙박보장서는 알제리 내 행정 기초단체인 면-APC으로부터 공증 필요)을 입증해야 됨.

○ 비즈니스 입국비자 (상용비자)

- 비즈니스 입국비자 즉, 상용비자는 현지 KOTRA 무역관이나 알제리 측 비즈니스 거래 선이나 파트너 업체의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첨부해야 하며 초청장 내용에는 피 초청인 의 인적 사항(회사명,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와 알제리 방문목적과 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출입국

○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 입국수속 : 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은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 (CARTE DE EMBARQUEMENT/ DEBARQUEMENT) 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대(IMMIGRATION)에 여권을 제출해야 함. 여권 심사 후 출구로 나온 후 수하물을 찾으려면 되는데 수하물에 하얀 분필이 칠해 있으면 세관 검색대상임. 공항 세관통관 시 휴대품 검색 등 통관 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과도한 샘플 등은 과세 대상임.
- 세관신고: 알제리는 단기 입국자의 경우 귀중품, 외화 500유로(미화 700불) 이상의 세관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출국시 입국 당시 반입한 물품을 재반출할 의무가 있음.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 후 검색대를 통해 나오면 바로 원편에 있는 세관신고 사무실에서 외환신고를 해서 관련 증빙서 (DECLARATION DE DEVICES)를 받아야 출국 시 외환을 휴대하고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음. 또한 출국시 외환신고서(DECLARATION DE DEVICES) 뿐만 아니라 알제리 내에서 외환을 현지화로 교환한 증빙서도 지출증빙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음. 또한 비즈니스 출장 시 샘플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인보이스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출국수속 : 공항에 도착하면 입구 검색대를 통해 들어간 후 원편으로 들어가면 에어알제리 등 각 항공사별로 출국창구(CHECK-IN COUNTER)가 있음. 보안체크등과 수속창구가 많지 않아 비행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수속을 밟아야 함. 수하물을 부치고 좌석 배정을 받은 후 여권과 비



행기표, 출국카드를 작성해 서류심사(CONTROLE DE DOCUMENT) 창구에서 확인 스탬프를 받아야 함. 확인을 받은 후 탑승을 위해 출국심사창구를 거쳐 세관을 거쳐 탑승장으로 이동. 이동 후 비행편에 따라 배정된 대합실(SALLE)에 들어가 탑승하면 됨.

- 예방접종 : 현지에는 풍토병이 없어 말라리아 등 예방접종 및 방역은 필요가 없음.

○ 교통편

- 알제공항에 도착하면 주요 호텔(Hilton, Sheraton, Mercure, IBIS)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니 공항 출구 앞에 위치한 호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운행정보를 문의하면 됨. 이외 주간에는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야간에는 사전에 거래선 등에 연락하여 픽업을 부탁 하는 것이 안전함. 공항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쌈. (최소 1000 ~ 1500 디나르를 요구. US\$ 14~20에 해당하는 금액) 알제 공항에서 알제시까지는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30분 정도 소요됨. 이외 공항 버스 등은 운항이 되지 않고 있음.

○ 주의할 점

- 입국 시 외화반입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나 출국 시는 500유로 (미화 700불) 이상 반출 시에는 환전증명서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니 유의. 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체크를 위해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30분전에 체크인창구가 마감 (Closing)되니 비행기출발시간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수속을 진행.

5. 환율/환전

□ 통화단위 및 종류

- 알제리 디나르(DA/Dinars Algerian)가 알제리 공식통화로 시중에 통용되며 미달러화나 유로 화는 환전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음. 지폐는 2,000, 1,000, 500, 200 DA권이 동전은 200, 100, 50, 20, 10, 5, 1DA와 가 유통되고 있음. 100쌍팀(Cts)이 1디나임.



○ 환율체제

- 알제리는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는 편이며 알제리 중앙은행에서 자국통화에 대한 주요 외화인 유로, 미달러화등 환율을 매일 고시하고 있음. 한편 환율체제는 외환통제상 이중 환율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알제리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대금의 50%는 외환법상 현지화로 교환해야 하는데 시중환율보다 4-5% 높은 우대환율을 적용해주고 있음.

○ 환전

- 알제 국제공항(“후아리 부메딘”/ Houari Boumedine Int'l Airport)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환전소나 알제 시내에 소재한 특급호텔 출납창구(Cashier)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서도 유로, 달러화 등 국제결제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음. 2016년 5월 대미기준 환율은 US\$1=DA107 수준이며 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나 호텔환전소마다 다소 상이함.

○ 신용카드 사용

- 알제리는 금융 산업의 낙후로 상거래 관습상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15,000디나르(약 200불)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음. 알제리에서는 여행자수표는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여 불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특급호텔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현지화인출 서비스는 가능하나 외화인출 서비스는 불가. 호텔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은행 기준환율보다 약간 불리한 환율 (US\$1=DA105미만)로 디나르화 기준 호텔비를 미달러화로 환산되어 수수료등이 부가되어 카드 사용대금이 청구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함.

6. 교통/통신

□ 항공편

- 우리나라와 알제리간에는 직항 항공노선이 운항되지 않고 있음. 인근 유럽 주요도시인 프랑스 (파리), 이태리(로마),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이나 중동의 터키 (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카타르(도하), UAE(두바이)를 경유하여 알제리로 오는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알제리로 오는 항공편은 AIR FRANCE가 편리한 편이나 파리-알제 구간을 운행 하는 파리공항이 오를리와 샤를르 드골공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파리 북쪽 드골공항(CDG)에서 남쪽에 소재한 오를리공항(ORLY / Terminal WEST-L'OUEST)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음. 에어알제리의 경우 샤를 르 드골공항 인근인 르와씨(Roissy)에서 매일 출발하는 노선과 오를리공항에서 매일 3편이 운행되고 있음. 최근 루프트한자(LH)가 주5회 운행되고 있어 동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중간에 1박 이나 공항을 이동하지 않고 알제로 바로 들어 올 수 있음. 최근 카타르항공(QR)의 도하 경유편, 에미레이트 항공(EK)의 두바이 경유편도 매일 운영되고 있어 한국 방문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음.

□ 취항 항공사 리스트

- 2005년 이후 알제리정세가 안정을 찾고 고유가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유럽주요국은 물론 중동지역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알제리노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중임.
- 현재 알제에 취항하는 국제 항공편에 Air France, British Airways, Lufthansa, Alitalia, Iberia, Egyptair, Royal Air Maroc, KLM, Aigle Azur, Air Canada, Tunis Air, Qatar Airways, Emirates Airline, Royal Jordanian Airlines 등이 있음.

□ 통신

- 국제통신
 - 알제리에서 통신서비스는 알제리우정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상업적인 통신서비스 분야는 국영기업인 알제리 텔레콤(Joint stock company)에서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 통신 라인이 부족하고 설비 노후화로 통화품질이 양호하지 못하며 자주 끊기는 수도 있어 열악한 편이며 사용요금은 고가임.
 - 한편 알제리에서 한국으로 국제직통전화를 할 경우 예는 00 + 82 + 지역번호 +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고 수신자 부담전화 제도는 없으며 국제 전화카드도 사용하지 못함
- 인터넷
 - 인터넷은 ADSL 인터넷서비스(최고속도 25메가)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회사의 경우 월 가입비가 최소 U\$200에 달함. 최근 일부 특급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공항과 호텔 내에서 무선인터넷이 서비스되고 있어 인터넷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임.



6. 호텔/식당

□ 호텔

-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시에는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비즈니스호텔이 제한되어 있어 인근 마그레브 국가인 모로코, 튀니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호텔수준에 비해 가격이 2-3배 고가로 유럽과 거의 같은 요율임.
- 호텔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고 성수기에는 호텔예약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을 받는 것이 관례임.
- 호텔 예약을 저렴하게 하려면 KOTRA 무역관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 하면 호텔 및 예약시기에 따라 20-30%내외의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을 수가 있음.
- 알제리 내 호텔은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는 국내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불가능한 실정임.

□ 식사

- 알제시에는 외국인 구미에 적합한 프랑스, 이태리, 레바논, 터키식 유명식당이 10여곳 영업하고 있음. 우리 입에 맞는, 정식 영업중인 한국식당이나 일본식당은 없고 중국식 레스토랑만 다섯군데 가량 영업하고 있으며 중국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음.

알제시 주요 식당 연락처

이 름	전화번호	비 고
Mercure 호텔 식당 'Mudan'	+213 (0)21 24 59 70	중식
El Djenina Restaurant	+213 (0)21 61 40 26	현지식
Le Tantra	+213 (0)21 65 46 54	현지식, 양식
Le Taj Mahal	+213 (0)21 91 29 40	인도식
El Aurassi 호텔 식당 'QOM TARA'	+213 (0)21 74 82 52	양식

7. 여행시 유의사항

□ 위험지역

-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지속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는 국내적으로는 사



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알제리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 외국인 투자유치 등 알제리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 지난 2005년 9월말 실시한 국민대화 합헌장(Charter for Peace & National Reconciliation)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사실상 테러가 종식된 것으로 알제리정부는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음. 최근 테러발생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비즈니스맨의 알제리 방문 러시를 이루고 있음.

- 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 테러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방출장시는 육로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우리 대사관이나 현지 KOTRA와 유기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최근 수도 알제 이외 오랑, 콘스탄틴, 아나바, 바르나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상업 도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출장 시는 가급적 항공편을 이용 하거나 육로 이동 시는 현지인을 대동하여 주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음.
- 테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 시 경유하는 것과 심야 단독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까지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국의 경우 알제리의 치안 상태는 위험수준으로 평가해 자국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여행 자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팁 관행

- 알제리에서 서비스요금을 지불 시 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팁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음. 알제리인의 경우 자존심과 사회주의 경험으로 외국인에게서 잔돈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외국인 방문 잦아지며 호텔, 식당가 등 서비스업계에서 팁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공항이나 호텔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와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 100디나(약 미화 1-2불)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됨. 그리고 호텔투숙 시, 침실 청소 시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50디나 정도를 놓아두면 좋음. 레스토랑 등에서는 서비스료가 음식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음식값의 5% 정도를 팁으로 줄 수 있고, 의무사항은 아님.

□ 문화적 특이/금기사항

- 132년의 식민 지배를 스스로 탈피했던 경험, 또한 인근 튀니지, 모로코 등의 마그레브 국가들과는 달리 석유, 가스가 풍부한 산유국인 이유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국민소득이 높음. 이에 마그레브의 맹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에 사회주의 경험까지 더해져서 알제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매우 강함.

-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문화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점차 외국인 배척이 완화되는 편임. 그러나 일반 알제리 국민들의 동양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비우호적인데, 이는 알제리 내 약 20만명으로 추산(정확한 통계는 알제리 당국에서 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되는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임. 알제리 내 불법입국자를 포함하여 중국인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알제리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데, 중국인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음.
- 대부분의 알제리 인들은 처음 본 동양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길거리에서는 어디거나 중국 인사말을 들을 수 있음. 대부분 “니하”(중국말 니하오를 비하), 시누이(중국인을 뜻하는 프랑스어 시누와를 놀리는 표현)이라고 말을 걸거나 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일이 반응함 보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므로 여유를 가지고 웃거나 가볍게 넘기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한국인이라 국적을 밝히면 태도가 변하며 우호적으로 대함.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발전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
- 알제리는 이슬람국가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라마단 기간 등 종교 휴일을 제외하고는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주류가 판매되는 개방된 문화를 갖고 있음. 또한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도 시내에 몇 군데 눈에 띈. 와인이나 맥주는 쉽게 구할 수 있음. 알제 등의 대도시에는 이슬람 색채가 다소 약하나 지방으로 갈수록 이슬람의 영향이 강해지며 전통 이슬람 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많음. 이에 사진촬영, 여성과의 대화 등 무슬림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갈 필요가 있음.

III. 알제리 동향 및 전망

1. 경제 동향

□ 테러종식과 탄탄한 재정으로 인한 정치, 경제 안정

- 강력한 리더십으로 집권 4기(2014.5-2019.4)에 돌입한 “부테플리카” 정부는 최대 정책과제로 국민화합(national reconciliation) 달성을 설정. 2005년 9월 말 국민대화합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 대사면 조치가 통과되어 내부적으로는 테러를 종식시키면서 정치, 사회 안정을 이루었음. 외부적으로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간 300억불을 넘는 외화가 유입되었으며, 2010-201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후속 5개년 개발 계획(2015-2019)을 추진 중임.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경제개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그간 알제리정부는 1,2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 비효율적인 공공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 분야 개혁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개혁 작업이 정치권과 노조 등 반발세력과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경제개혁은 멈출 수 없는 알제리 경제정책의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실업 해소와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 공사 발주

- 현재 공식적으로 노동 가용인구 중 10%가 실업상태에 있는데 특히, 총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 알제리 정부는 비석유 분야 개발, 각종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지원등을 위해 기존 5개년(2010-2014) 개발 계획 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5개년(2015-2019)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 다만 이전 5개년 개발 계획에서 총 2,860억불 규모의 예산을 편성 했지만 이번 5개년 개발 계획에서는 총 2620억불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아직 구체적인 정부측의 계획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주택, 도로, 수자원 개발 등 몇몇 분야는 대략적인 청사진이 발표. 대부분 사회 기반 시설, 즉 도로·철도·항만·공



항·통신 등이며 아파트나 빌딩·댐 건설이나 수력발전·수로 건설 등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도 해소하고 경제인프라도 구축하려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다만 '15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난과 민간부분 금융 지원 부족 및 금융인프라 부실이 민간기업 성장과 실업해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최근 경제동향

- 21세기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지속되어왔던 고유가 시장이 2014년 4분기를 기점으로 내리막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무너져 내림.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가가 더 떨어져 20달러대로 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전망들 가운데, 알제리는 2015년에는 평균 1.5%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기준)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광업 분야 외 서비스, 제조업 성장으로 3%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음
 - 그동안 적립해 둔 외환 보유고가 1200억불을 상회하고, 국가 외채도 GDP 대비 1.6%에 불과한 알제리 정부는 이와 같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불안을 낮추기 위한 최대 선결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 인프라 확충,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
 - 이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15~'19) 기간 중 인프라 건설,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 등 산업다변화 및 신기술 개발 등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지속 투자할 계획임.
- 다만 2014년 하반기 들어 전 세계적인 경기 불안 및 OPEC 회원사간 가격 카르텔 불협화음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인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정부 예산 지출에 제약.
 - 이는 알제리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탄화수소 가격의 하락에 의해 정부 예산 지출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전체적인 프로젝트 발주 계획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



- 알제리 정부는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위탁 가공 생산에 관세 및 통관 등에 혜택을 늘려가고 있음

2. 대외교역전망

□ 저유가 시대, 불안한 흑자 기조

- 알제리 관세통계청은(CNIS)에 따르면 알제리의 2014년 수출액이 4분기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4.49% 감소한 629억 달러를 기록. 하지만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수입액이 583억 달러를 기록, 전년의 548억불 대비 6.34% 증가. 이에 무역수지는 2012년 215억불, 2013년 110억불을 기록하던 것이 2014년에는 46억불 흑자에 그쳐 매년 50% 가량 감소하고 있음. 저유가 기조가 심화된 2014년 4분기 이후에는 알제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2014년 對알제리 수출국은 중국(82억 달러), 프랑스(63억 달러), 이탈리아(50억 달러), 스페인(50억 달러), 독일(38억 달러) 순이며 對알제리 수입국은 스페인(97억 달러), 이탈리아(84억 달러), 프랑스(67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네덜란드(51억 달러)를 기록. 한국은 알제리에 16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수출국 순위 9위를 기록하였으며, 9억불 어치를 수입하여 수입국 순위 16위를 차지.
- 한-알제리 교역관련 특징으로, 한국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건설 중장비, 자동차 부품이 전체 대 알제리 수출 비중의 70%를 웃돌고 있었으나 저유가로 인한 알제리 소득감소와 자동차 쿼터 시행으로 기계류에 그 자리를 내주었음. 수입관련, 나프타가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201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 가시화와 자원수출국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알제리는 금년 1월 신규 재정법 발효로 비관세장벽 (수입쿼터



제, 수입 가전, 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금지) 및 외환통제를 강화하였음(특히 L/C 개설부분)

○ 상기 재정법 발효로 L/C 개설관련 중앙은행의 통제가 강화되어 바이어들이 D/P&D/A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완제품 수입엔 쿼터 및 고관세의 규제가 따르기에 SKD 방식의 수출이 정부차원에서 권장되고 있음

3. 주요산업동향

- 알제리 경제는 석유가스부문(Hydrocarbon Industry)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 알제리 산업구조를 보면 석유, 가스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수출의 98% 정도이며, 전체 GDP의 절반 가량, 재정수입의 4분의 3을 차지.
- 알제리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한 관계로 정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장비, 전기 전자산업, 금속, 제철, 철강, 제강, 식품, 전력, 시멘트, 섬유, 기계산업(화물차, 버스 기타) 등 일부 중화학부문의 비효율적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재를 포함한 여타 기초 제조업 등은 발전이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 차원에서 공업국가로의 재도약을 계획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산업별 GDP구성은 채굴산업 비중이 36%, 농업부문 9.7%, (이상 1차 산업) 전기, 가스, 수도 산업(0.8)% 이외 제조업 4%, 건설이 9.6%(이상 2차 산업), 서비스산업이 20.8%, 공공서비스가 18.1%(이상 3차 산업), 기타 서비스가 1.0%를 차지.(자료원 : 2013년 IMF)

☐ 석유 및 가스

- 알제리는 원유생산량에서 아프리카에서 3번째, 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매장량은 14위(122억 배럴, 2010년 기준)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8위(4조 5000억m³, 2010년 기준)를 점하고 있음.

☐ 주요 광물자원



- 석유·가스의 경우처럼 금, 은, 철, 텅스텐,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알제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사하라 지역에 분포.
 - 대리석, 철광석, 옉스 등 극히 일부 광종만이 북부지역에서도 함께 채굴 가능함.
 - 금광(gisements d'or)은 Hoggar 지역, 특히 Tirek, Amessmessa, Tiriine-Hnanane et In Abegui 지역에 분포.
 - 은광(gisements d'argent)은 Ougqrta 지역, 다이아몬드는 Reggane 지역에 주로 분포.
 - Hoggar 지역은 금 외에 우라늄(Timganouine, Abankor 지역) 및 텅스텐(Aït Oklan, Enhine 지역)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 북부지역은 Oeunza & Boukhadra(Tebessa 지역), Hnini(Setif 지역) 등의 철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 철광석 외에 Filfila, Krystel, Guendou, Aïn Defla 지역에서 대리석, Takbalet, Bou hanifia 지역에서 옉스를 생산하고 있음.
- 석회석(Calair)은 Aïn Temouchent, Tebessa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망간은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Guettara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음
 - 다만, 망간은 광석에 함유된 비소(arsenic)의 제거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미개발중임.
- 석고(gypse)는 Sidi Bel-Abbes, Arzew 지역, 황(soufre)은 Cheliff, Tebessa 지역, 장석(feldspath)은 Aïn Barbar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음.

□ 건설업

- 알제리는 현재 주택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어 중기적으로 주택건설부문 개발이 가장 활발함. 현재 알제리에는 공공임대주택(public social rental housing)이 대세이나 주택 공급이 시장수요에 부족한 실정으로 알제리는 1가구당 거주인원이 7명일 만큼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임. 이런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 간 매년 175,000호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외 기존 노후화된 주택도 재건축 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여전히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160만 가구를 공급하는 2015~2019년 주택 5개년 프로젝트를 발표. 또한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 도시의 팽창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신도시 건설 및 도시 주변에 베드 타운(Bed Town; 주거밀집지역)을 건설할 예정.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행에 따라 외국건설기업이 알제리에 대대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음. 총 공사비 110억불 규모의 남북 연결 고속도로와 알제리 고원지대 연결 고속도로 공사도 추진중에 있음. 이외 사하라 남부지역인 인사라-타마라세트를 연결하는 총연장 720km의 수자원개발사업(Water Supply Pipeline Project) 등이 추진 중임. 이외 신도시 및 신항만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유가하락에 불구, 알제리는 120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SOC, 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국내외 민자유치나 日 및 유럽계 금융기관 등 공적원조기관의 자본유입에 의한 대규모 민간 투자도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목표 장기계획 SNAT(Schema National d'Amenagement du Territoire)과 실행계획인 국가개발 5개년 계획(Programme quinquenal)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국토를 정비중에 있는데 '05~'09간 제1차 국가개발계획으로 1,200억불을 투자중이며, '10~'14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을 1,500억불 규모로 수립 중임.
 -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4~'09년간 100만호 건설에 이어 '10~'14년간 추가로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임.
- 항만의 경우 Alger, Annaba, Oran, Djendjen 등 4개 항이 전체 물동량의 75%를 소화하고 있으나, 병목현상이 심해 20여개 프로젝트가 추진중임.



IV. 알제리 수출대금 결제 방식

□ 외환송금 결제 원칙

- 모든 무역거래에서 일체의 T/T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모든 무역거래는 신용장 거래가 원칙이나 D/A, D/P 거래도 가능함.
- 모든 외환송금은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이러한 원칙은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확대에 따라 최근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
- 국내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출국 시 1인당 7천유로 상당의 외화만을 휴대할 수 있음.
 - 해외출국증명서 (항공권,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시하여야만 외화 인출 가능
- L/C, D/A, D/P의 조건을 사후 변경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은 각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알제리중앙은행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함.)

□ L/C 방식 결제

- 모든 수입상은 자기자본금 범위내에서만 L/C개설이 가능함.
- 특히 알제리는 지난 3월 15일부터 「수입대금 전자결제시스템」를 도입함.
 - 이는 시중은행과 알제리 중앙은행이 L/C 개설 관련 종합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허위신고, 허위서류, 이중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 수입상은 L/C개설 사전 온라인을 통해 기업상호명, NIF, NIN(국가 식별번호: Numero d'identification nationale unique),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허가번호 (le numéro de la licence d'importation), 기업활동승인 조회번호(la référence d'agrément d'exercice d'activité), 기업활동장(la definition de l'activité : production-revente en l'état, 생산 및 전매상태), 상품의 최초정보와 완성본 정보(la nature de la merchandise et enfin l'objet), 번호, 날짜, 총 합계금액, 청구서 지불 방식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온라인 상으로 은행 지점에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본점으로 통보가 가게 되며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난 후 L/C개설을 위한 접수가 완료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L/C개설을 위해서는 알제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낙후, 시스템부재 등으로 인해 L/C개설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 * 최근 알제무역관 지사화업체가 바이어로부터 3건의 오더를 수주하였으나 L/C개설이 지연되어 바이어와 함께 현지은행을 직접 방문, 신속한 L/C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알제리 중앙은행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 D/P, D/A 방식 결제

- 당초 D/P 거래란 수입상이 현지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받게 되며 현지은행은 즉시 수출자 거래은행에 동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나
- 알제리에서는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찾아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당초 신고내역대로 정식 수입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현지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다시 알제리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수출대금이 송금됨.
- 따라서 알제리에서의 D/P방식으로 대금지급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나라들의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최소 3주 정도 더 걸리며 심한 경우, 2-3달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음.
- D/A 방식도 똑같은 절차가 요구됨.

□ 숙지요망사항

- 알제리와의 거래 시,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결제방식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알제리 중앙은행과 세관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L/C가 개설되거나 수출대금이 결제됨.
- 따라서 L/C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대금결제방식, 조건, 금액 변경 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금융시스템 낙후와 강력한 외환통제, 지하경제 만연 (블랙마켓 형성)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반드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 신용조사와 수출보험가입이 필요함.



V. 주요 연락처

☐ 알제 무역관

성명	대표전화/Fax	휴대전화	이메일
조기창 관장	* Tel +213 (0)21 60 44 51 +213 (0)21 69 41 94 +213 (0)21 69 42 03 * Fax +213 (0)21 69 42 09	+213 (0)661 55 75 84	sheep@kotra.or.kr
김학순 과장		+213 (0)770 65 07 04	Hkim0587@gmail.com
WAHIBA (마케팅)		.	bwahiba.kotra@gmail.com
HAYET (지사화)		.	laidihayet.kotra@gmail.com
LILIA (조사)		.	lilia.issad.kotra@gmail.com
MOHAMED (지사화)		.	mtarafi.kotra@gmail.com
RADIA (지사화)		.	radia.kotra@gmail.com

☐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성명	대표전화/Fax	이메일/홈페이지
박상진 대사	* Tel +213 (0)21 54 65 55 +213 (0)770 11 44 00 * Fax +213 (0)21 54 65 70	koemal@mofa.go.kr http://dza.mofa.go.kr
배현진 서기관		
김수연 영사		

☐ 알제 주요 호텔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Hotel IBIS	+213 (0)21 98 80 20	+213 (0)21 98 80 01	Route de l'université 16000 - BAB-EZZOUAR, ALGERIA
Sheraton Club Des Pins Resort	+213 (0)21 37 77 77	+213 (0)21 37 77 00	Boite Postale 62 · Staoueli · Algiers · ALGERIA
Hilton Alger Hotel	+213 (0)21 21 96 96	+213 (0)21 21 97 97	PINS MARITIMES EL MOHAMMADIA, ALGER, 16000, ALGERIA

☐ 기타 연락처 (알제 시내 한인 게스트하우스)

이름	전화/이메일	비고
코리아 하우스 (숙박)	+213 (0)561-80 84 51 hybs0987@hanmail.net	사전예약 가능 여부 확인 필요 (1인당 최소 \$120 ~)
박 케이터링 (숙박/식당)	+213 (0)560-31 63 65 groupepark@yahoo.com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